

**전일동향**

전일대비 1.50원 하락한 1,468.40원에 마감

2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1.50원 하락한 1,468.4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1.10원 상승한 1,471.00원에 개장했다. 환율은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인 1조 2천억원 어치 넘는 순매수에 하방 압력을 받았으나, 고점 인식에 따른 수출업체 네고 물량 출회와 당국 경제감이 상단을 제한하며 1,468.40원에 증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 장중 변동 폭은 6.9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 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42.18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증가(15:30)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471.00	1473.20	1466.30	1468.40	1469.60
	엔화	945.55	946.82	939.45	942.18	-
	유로화	1706.42	1709.71	1702.08	1706.87	-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2.27	-6.92	-12.29	-20.37
	결제환율(수입)	-1.42	-5.61	-10.27	-16.89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리스크 온 분위기에...1,460원대 초중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3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468.40) 대비 보합인 1,468.4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달러 약세와 기술주 리스크 온 분위기에 하락 전망한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해식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잠재적인 연준 의장으로 소개하며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강화될 수 있다는 인식 속 달러는 약세 흐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밤사이 뉴욕증시가 성장주를 필두로 상승 폭을 확대하면서 어제 대규모 순매수를 기록한 국내 증시 외국인 투심 회복도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 9월 및 10월과 달리 신규 유입 자금 상당수가 FX스왑이 아니라 기존처럼 현물시장으로 복귀하면서 직접적인 환율 하락압력으로 연결될 소지가 다분하다. 여기에 단기 고점 확인에 따른 수출 및 중공업체 고점매도도 1,460원 초반 안착을 지지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한편, OECD는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27년 각각 1.0%/2.1%/2.1%로 제시했는데, 이는 지난 11월 한국은행 전망치보다 높은 수치이며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펀더멘탈은 환율에 즉각 반영되진 않겠으나 재료 자체는 원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엔화는 장기물 금리의 진정에 엔 캐리 트레이딩 청산 우려가 완화되고, BOJ 금리 인상 기대 하향 조정에 약세를 보일 전망이다.

다만, 거주자 해외주식투자 확대, 수입업체 결제 등 역내 실수요 저가 매수는 하단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462.80 ~ 1472.20 원
---------------	---------------------

<b>체크포인트</b>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2146.94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보합
	■ 美 다우지수 : 47474.46, +185.13p(+0.39%)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81.84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6028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